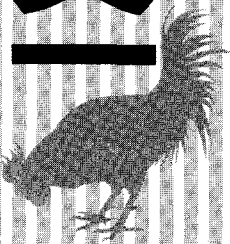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미 국

닭 깃털로 고밀도 플라스틱 합성품 원료 이용

도계후 뽑혀진 닭 깃털은 분쇄되어 사료나 비료원료로 일부 사용되어지거나 태워없애는 것이 상례화되어왔다. 그러나 미국의 농업 분야에서 화학자로 일해온 Walter씨는 차의 범퍼나 배의 외부충격 완화 장치에 닭의 깃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 깃털의 섬유질을 고밀도 플라스틱 합성품 원료로 사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차의 범퍼나 배의 외부충격완화장치는 대부분 목재펠트가 주원료로 사용되어졌으나 깃털을 이용할 경우 50% 이상의 펄프를 줄일 수 있어 산림보호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상용화 될 경우 쓸모없이 태워 없애지던 깃털이 수입원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였다.(WGN)

쿠바에 수출 재개

미국이 그동안 사회주의국가인 쿠바에 양계산물은 물론 식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난 해 11월 쿠바정부에서 수출재개를 약속하면서 미국의 100여개 식품회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의 양계산물 수출도 활기를 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쿠바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식품이 태풍처럼 밀려들 것이며, 매년 1억불(약 1,200억 원)의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WP)

영 국

회전 계란의 패러독스, 300년 수수께끼 풀려

무려 300년 동안이나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을 괴롭혀온 회전계란의 패러독스(spining egg paradox)가 영국 캠브리지대 모팻 교수팀에 의해 수학방정식으로 풀려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지에 발표되었다. 그 동안 삶은 계란을 책상위에서 돌리면 무게중심이 위로 이동하면서 똑바로 서는 현상에 대해 아무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책상과 계란의 마찰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에 착안하여 책상과 계란의 각도, 마찰력과 회전속도를 변수로 만들었는데, 유리판과 같이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팀은 계란의 무게중심이 위로 이동하는 상황은 계란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날 계란은 액체상태의 노른자와 흰자가 계란껍데기의 회전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DN)

신 케이지사육 허용정책 발표

영국계란협회(BEIC)는 정부가 새로운 케이지 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환영의 표시를 취하였다. 독일을 중심으로 지난 1999년 제정된 동물복지 관련 케이지 전면 금지 정책에 대해 닭들에게 충분한 공간과 놀이기구 등을 설치할 경우 케이지에 사육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 케이지에 사육하는 사육수수 비율은 72%로 그동안 방사 형식으로 전환되어 왔다. 이같은 케이지 정책으로 계란 생산자들은 방사형태에서 생산되는 계란보다 싼 가격에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를 위시한 케이지 업체들의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내다보았다.(BEIC)

일본

콜레스테롤에 대한 모든 오해는 토끼실험으로부터

일본 양계협회에서는 계란의 우수성과 소비

증대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토끼의 실험에서 야기된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푸는 것이다. 주 내용을 보면 토끼에게 콜레스테롤을 먹이면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0~3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쥐, 개, 사자에게 콜레스테롤을 먹여도 전혀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토끼, 양, 소 등은 초식동물, 쥐, 개, 사자 등은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초식동물은 소장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동맥에도 콜레스테롤이 붙기 쉽지만 육식 동물은 콜레스테롤을 먹어도 소장은 필요 이상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지 않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을 간장에서 합성하기 때문에 토끼의 콜레스테롤 실험 결과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 이해를 돕고 있다.(JPA)

EU

광우병과 구제역 여파로, 닭고기 소비 호조 예상

EU(유럽연합)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광우병과 구제역의 영향으로 우육, 돈육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닭고기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4%증가한 914만톤이 생산되었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2%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수출입에서도 수출물량은 4% 줄어드는 반면 수입물량은 30%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PI)